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성경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리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오늘날로하면 이테리 사람인 고넬료는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중심에서 되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었음을 예루살렘 공회가 공식적으로 인식하는 사건이 되었거든요.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곳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혹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거든요. 그렇다면 “부르심과 택함”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 봐야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게 아니라, 저는 친구따라 교회 나왔는데요?”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질문, “부름심과 택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의 어떤 점을 보고 부르셨는지’에 대해선 사실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둘 부분이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이 제시해 주는 답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로마의 군대가 항구도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가이사랴를 통치하는 군대 장관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게 아니니까요. 해서 잘은 모르지만 마음을 다해 자기가 아는대로 기도도하구요, 예배도 드린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후 3시에 기도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내용이었죠.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시간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고넬료에게 찾아가라는 환상을 본 것도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 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feel받아서 기도하고, 오늘은 기분도 그렇고해서 기도 안하고가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자기만의 기도시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어떤 분에게는 새벽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시간에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분께는 직장이나 가게에 출근하자마자 일수도 있구요. 또 어떤 분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요. 바라기는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우리들도 아무리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 스스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차별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죠. “택함 받았음” 이 “우월함” 의 조건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오만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요,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가장 적은 민족”이라는 건 다른 민족보다 약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작았지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왜 택함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는 동안에 교만한 생각들을 하기 쉬워요. ‘역시,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뛰어나서!’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뽑잖아요. 인터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뽑겠어요? 직장에서 보기에 그 일에 가장 잘 맞고 잘난 사람을 뽑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 달라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엘이라는 CCM 그룹이 있는데, 그 앨범 가운데 “내 모습”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요: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와/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마치 세상에서 사람을 인터뷰하고 적임자를 뽑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제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뽑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시

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아니면, 하나님 친 동생쯤은 되려고 하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하는 택함의 이유는 오늘 “증인” 됨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말도 섞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인 내가 이방인 고넬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며 우월해지라는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것과,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말이죠. 당시에 버려지처럼 여겼던 이방인한테도 하나님의 택함이 역사가 있구나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감격했어요.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흔히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와 같은 범죄행위들을 먼저 연상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그건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 드린바와같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는 “missing the target” 즉 과녁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과녁을 맞히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다면, 그 잘못된 것은 빗나간 화살이나 과녁판에 있는게 아니죠! 잘못된 잘못된 조준에 있다는 거예요! 조준이 잘못되었기에 화살이 과녁을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의 원인은 잘못된 우리의 행동 이전에, 잘못 조준된 우리의 마음, 다시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조준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거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건, 죄의 결과인 범죄행위만을 의미하는게 아니에요.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 많은 경우에 세상의 법이 담당하고 있어요. 도로에서 범을 어기면 티켓을 받죠. 벌금을 내야죠. 사기를 쳤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세상에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잘못 조준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

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속으로 나쁜 마음만 먹고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죄가 되니 말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참 무서운 일이죠. 세상에서는 간혹 청탁이라든지 위조 편법이 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그러한 것이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과는 크게 상충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니까? 바로, 죄사함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일행에게 복음에 관해 설교하고 있어요. 화평의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만에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주님의 증인으로 미리부터 지목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재판장으로 삼으신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시다. 이것이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위한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요!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구원자가 되신다? 얼마나 큰 모순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죽을 죄인인데, 구원자가 되신다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결과를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엄한 재판장으로 존재하시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죄사함의 구원자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3:17-18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판장이신 동시에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그분을 지엄하신 재판장으로 맞을 것인가, 아니면 죄사함의 구원자로 맞을 것인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속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이 세상을 섬기면서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재판장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남 얘기처럼 들립니다. 제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동안에 그 남 얘기처럼 들리던 것들이 내 얘기가 되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남 얘기해가지고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